"노류장화는 사람마다 꺾으려니와 산닭 길들이기는 사람마다 어렵다"

뜻: 길가에 핀 꽃은 누구나 쉽게 꺾을 수 있지만, 야생에서 마음대로 자란 새를 길들이는 것은 아주 어렵다는 뜻으로,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자란 사람을 다시 바르게 가르치기는 힘들다는 말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자유 · 습성 · 대조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노 류 장 화 는 ∨ 사 람 마 다

꺾 으 려 니 와 ∨ 산 닭 ∨ 길 들 이 기 는

사 람 마 다 ∨ 어 렵 다

2단계 따라 쓰기 옅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노 류 장 화 는 ∨ 사 람 마 다

꺾 으 려 니 와 ∨ 산 닭 ∨ 길 들 이 기 는

사 람 마 다 ∨ 어 렵 다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ㄴㄹㅈㅎㄴ] [ㅅㄹㅁㄷ] [ㄲㅇㄹㄴㅇ] [ㅅㄷ] [ㄱㄷㅇㄱㄴ] [ㅅㄹㅁㄷ] [ㅇㄹㄷ]

웹에서 보기